



## 일본 실버주택의 현주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77.5세로 지난 20년새 8.4세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산업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노령화에 따른 주거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절대 평균수명(2005~2010년)으로 세계 제일을 자랑하는 일본의 경우 '유료 노인홈'이나 '공동간호형 특별보호 노인홈' 등 다양한 주거시설을 채택, 고령화 인구의 유입을 피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日經아키텍처에서 "고령자 복지시설의 트렌드가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고 진단하고 '고령자 주거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한 특집 '고령자 주거'를 통해 일본 실버주택의 현주소를 점검해 본다.

글 · 이충희 기자

### 공동간호형 특별보호노인홈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실버주택이 흥미를 끌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본의 실버주택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다양한 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우선, 일본 효고현에서 케마히락원을 운영하는 아마카사키 노인복지사회의 이찌가와 레이코 이사장은 완전개인실형과 공동간호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케마히락원은 지금까지의 표준이었던 4인실에서 벗어나 각 룸을 완전 개인실화해서 극히 소규모 단위의 직원이 입주자를 보살피는

공동간호 형식을 선택했다. 이는 노인복지시설의 가장 선구적인 형태이다. 오픈 후 5년째를 맞는 이 시설은 "입주자의 1일 평균 수면시간이 약 7.5시간으로 4인실보다 2시간이 늘어났다. 낮 시간의 행동도 주의력이 붙었고 같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4개의 특별보호노인홈 중에서도 가장 사고가 적은 편"이라고 한다.

그 외 동선이 짧아져 직원들의 부담이 덜어졌으며, 개별적인 간호가 가능해져 고령자들의 세심한 욕구까지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시스템의 장점이라는 설명이다.



1 '마루'도 입주자들 생활의 장 채광이 충분히 들어오는 1층의 공용실로 의자나 책상을 놓아 거실처럼 입주자들의 생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마루에는 난간이 없고 필요한 사람은 창이나 가구를 잡고 걷도록 설계되었다. 2 거실을 바이패스로, 2층 기능회복 훈련실, 이벤트 공간으로도 활용되는 이 곳은 거실 앞의 마루를 생활공간으로 이용하도록 식당과 다다미 방으로 이동하는 바이패스로써의 기능을 담당한다. 3 거실은 완전 개별실로 약 16㎡, 전화도 가능하며 베란다에 화초를 심는 입주자도 많다. 다만 개인실은 난방비가 1개월에 1만엔 이상으로 4인실보다 비싸다.

### 아담한 사이즈로 안락함 추구

이러한 개별보호 시스템을 채용한 배경에는 “고령자를 수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고령자가 생활하는 주거형태를 만들고 싶다”는 동기가 숨어있다. 개인실화는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히노건축설계사무소의 히노 소장은 설계 시 중점을 둔 사항으로 “디자인을 고려치 않은 박스 형태의 큰 공간이 아니라 볼륨을 작게 보이도록 신경 쓴 것”이라고 말한다. 설계 당시 5개의 빛이 들어오는 정원을 배치했으며 복도와 거실 등 공동생활 구역은 정원에 둘러싸이도록 했고 거실은 건물의 외부에 나란히 두었다. 거실이나 동선의 축은 조금씩 거리를 두었으며, 층계의 곳곳에 스위치를 넣어 공간을 분할했다.

### 입주자 각자의 생활리듬 살려

거실 둘레에 배치한 복도는 통로이면서 동시에 주방이나 식당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개인 휴게실로 입주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테이블과 의자를 놓았다. 입주자 대부분은 오전 7~10시까지 편한 시간대에 일어나 현관에 놓인 테이블에서 편하게 식사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장점은 각 입주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생활 리듬을 갖는 동시에 적은 스텝으로도 입주자들의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입주자가 정시에 모두 한꺼번에 일어나면 옷을 갈아입거나 세안이 동시에 진행돼 도와주는 직원도 그만큼 많이 필요해진다. 그러나 지금처럼 분할해서 이뤄지면 8~9명의 노인을 한 두 명의 직원으로도 충분히 돌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돕기 위해서 조리 보존기구도 구비했다. 이 기기들을 이용해 전날 밤에 만든 음식도 재가열만 하면 입주자들은 신선한 맛을 유지한 아침식사를 할 수 있다. 레이코 이사장은 “조리하는 사람 없이도 각각의 시간에 일어난 입

주자들이 직원 한 명의 세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 개별보호 보수 개정으로 운영난 심각

효과적인 운영으로 입주자 개개인의 세심한 보호가 가능하지만 역시 이러한 개별보호형태 시설의 최대 난점은 사업채산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레이코 이사장은 “2003년도와 2004년도 결산은 좋았다. 그러나 2005년 10월에 있었던 법 개정에서 개별보호 보수는 약 4만8000엔, 식비도 약 2만4000엔 줄었다. 이대로라면 연간 약 2500만엔의 수입이 감소돼 운영해 나가기 힘들 지경”이라며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럼에도 개인실형과 공동간호형 시스템이야말로 고령자복지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레이코 이사장은 확신한다. 현재는 2006년 4월에 재검토되는 개별보호 보수의 행방에 기대를 걸고 있다.

### 입주자의 목소리

스즈키(87세)

#### “개인실에 들어와 인생이 바뀌었다”

예전에 노인보건시설에서 2년간 4인용실에서 지낸 적이 있다. 그때는 밤에 전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한밤중에도 화장실에 드나들거나 TV소리, 침대를 미는 소리 때문에 안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실에 들어와서 인생이 변했다. 밤에도 폭 잘 수 있게 되었으며 베란다에 꽃을 심거나 거실에 화분을 들여놓으며 주변 사람을 신경쓰지 않게 되었다. 지금은 내 힘으로 화장실도 갈 수 있게 됐다. 이곳에 오길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남쪽에서 본 전경. 독특한 외관은 시공 당시 '군함이나 별집' 같다는 말도 들었지만 현재는 주변 주민에게도 좋은 호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안에는 계단을 없앤 단체 간호형을 도입한 개별보호동이 보인다.

## 개별보호 유료노인홈

언덕 위의 경사면에 기리기 형태의 거실 배치와 세련된 은색으로 도색한 라이프 인 교토는 첫 눈에 보기에 고급 휴양지의 리조트를 연상시킨다.

라이프 인 교토의 아카시 요우코 원장은 "디자인은 지금 봐도 전혀 낡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개별 노인화 시대에도 살고 싶은 노인 홈을 만들고 싶어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다. 시설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시대를 앞서가는 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운영은 순조로웠다. 눈을 끄는 디자인이나 근처 병원까지 도보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지리적 장점 때문일까. 개설후 1년 안에 만실. 그 후 입주률도 96%를 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시설적인 면에서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부터 하나씩 고쳐나가기로 했다. 현관에 손잡이가 없어서 낙상자가 속출했던 로비의 계단에도 슬로프를 설치했다. 부족한 개별보호실은 증축했다.

"관내를 점검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개선이나 증설이 필요한 곳을 먼저 고쳐나가기로 했다"고 아카시 원장은 회상한다.

4년 전에는 개별보호체제를 개선하는 등 소프트적인 면에서도 고쳐 나갔다. 그러나 거실의 계단을 개선하는 것 외에도 시설적인 면의 보충은 끝이 없었다.

준시공 때부터 있었던 계단높이가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입주자들이 고령화 됨에 따라 신체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화장실과 욕실의 계단 높이. "보행기나 휠체어 이용자들은 계단을 넘을 수가 없어 화장실이나 욕실을 이용할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휴대용 용변도구를 침대 옆에 놓는 입주자도 있다"고 아카시 원장은 말한다.

층계의 높이를 낮추는 방법도 논의되었으나 "층계의 높이가 20m 높이에 제한되어 있어 발주자가 원하는 거실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계단높이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을 당시의 이사장에게도 보고해 문제가 명확히 보이는 것부터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거실의 계단차이는 개선공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다. 현관의 계단차이를 없애면 테라스의 계단차이가 커지게 된다. 수도 근처는 입주자가 바깥 때마다 개수하고 있지만 공용화장실이나 욕실의 계단 높이를 해소할 수 없었다.

“지금도 입주에 관한 문의가 연간 100여 건에 이르지만 개별보호가 필요한 입주희망자가 많아 결국 시설적인 문제 때문에 거절하는 경우도 많다”고 원장은 말한다.

그래서 계단이 없는 개별보호동을 건설, 개별보호가 필요한 입주자를 받는 체제를 갖췄다. 또한 얼마 전에는 치매 환자를 위한 특별개별보호동을 두 번째로 증축하기도 했다.

올해로 개설 20주년을 맞는 라이프 인 교토는 유료 노인홈 입주자의 연령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건물 또한 입주자들의 편의에 맞게 조금씩 시설적인 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다.

## 입주자의 목소리

다니구치(80대)

### “디자인에 매료됐지만 계단이 높아 고통스럽다”

개설 직후에 입주를 했다. 당시에는 은색의 훌륭한 건물로 외국 영화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세대에게 서양식의 건축물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입주 당시에는 큰 목욕탕도 근처 4층에 있었으며 식당도 3층에 있어 편리했다. 단지, 계단이 있어 힘들었다. 계단도 높고 거실에서 목욕탕까지는 가깝지만 높이 차이가 심했다. 테라스도 넓기는 하지만 무릎이 아파서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편했다. 외출하기도 겁이 났다. 요즘은 계단이 없는 신개별보호동으로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 개별보호 유료노인 홈

100건에 달하는 유료노인홈을 운영하고 있는 베네세 스타일케어는 오픈 하자마자 치매환자를 위한 마루 확장공사를 실시했다. 수리한 것은 오피스 빌딩을 유료노인홈으로 용도전용해서 2004년 10월에 오픈한 아리아 다카이고이다. 오픈 후 얼마 안된 2005년 5월, 4층 건물의 2층 일부를 치매환자를 위한 참여형 거실로 수리했다.

원래 2층 일부는 치매환자를 위한 용도였으나 건축적인 면에서는 보충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새롭게 수리를 하게 됐다고 베네세 스타일케어 스페이스디자인 부의 오카다 씨는 말한다.

이 회사는 4개의 대규모 시리즈로 유료노인홈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시리즈 각각 일시 입주금이나 서비스 수준도 다른데 이는 입주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최상급 브랜드인 아리아는 간호하는 스텝이 24시간 항시 거주하며 서비스 수준도 호텔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은 수준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아리아 시리즈에서는 식당도 외식하는 느낌이 들게끔 레스토랑의 내부처럼 디자인했다. 식사도 스텝이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으나, 이번 수리에서는 입주자가 음식 조리나 식사준비를 스텝과 함께 할 수 있도록 2층 부엌을 사면이 뚫려있는 아일랜드 형



1층 식당의 다이닝 키친에는 다실이 있다. 2층의 키친도 개수전에는 같은 양식이었음.

으로 바꿨다.

“치매환자들의 경우 일상생활의 반복을 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는 좀처럼 잊기 힘들다. 식사에 관한 것이 그 좋은 예다. 따라서 조리나 식사준비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 자극이 된다”고 오카다 씨는 말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아일랜드형 키친 뿐만이 아니다. 2층 마루에는 식당이 2곳에 있는데 식당 한쪽과 접한 커뮤니티 룸은 입주자 전원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워크 스페이스(Work Space) 룸으로 꾸몄다.

워크 스페이스 룸은 입주자가 서예교실이나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는 공간으로 테이블도 이벤트를 위한 큰 원탁 테이블로 바꿨다. 이러한 참여형 입주시설은 치매 환자나 의사소통이 적은 노인들에게는 정신적인 건강까지 치유할 수 있어 한국에서도 좋은 벤치마킹 소재가 되리라 본다. **HP**

## 운영자의 목소리

오카다(베네세 스타일케어)

### “거듭되는 시행착오”

치매환자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는 시스템을 건축학적으로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시설적인 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전부터 고민해오던 것이지만 항상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초기에는 차분한 공간 만들기에 주력했지만 최근에는 보다 눈을 즐겁게 하는 공간이나 치매환자들이 참여 가능한 공간 만들기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치매환자 외에 고령자를 위해서도 공용 정원이나 테라스 설치에 신경을 쓰고 있다.